

DuPont 과학기술상, KAIST 임선기

환경촉매 분야의 기초·응용연구 축적 ... Green화학으로 경쟁력 제고

임선기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58세)가 DuPont이 제정한 제2회 듀폰과학기술상을 받았다.

듀폰과학기술상은 국내 기초과학의 진흥과 산업발전을 도모하며,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기업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순수 과학기술상이다. 심사는 국내 기초과학계 원로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인규)이 맡아 진행했다.

제2회 듀폰과학기술상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김광웅 박사에 따르면, 임선기 교수는 지난 25년 동안 우수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고 특히, 대기환경 및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촉매 분야의 기초 및 응용연구를 축적해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임선기 교수는 다이옥신(난분해성 할로젠화 탄화수소) 및 휘발성 유기물(VOC) 제거를 위한 환경촉매 개발, 온실가스(CO₂) 고정화 촉매개발 및 탄화수소 청정에너지 합성, 대기오염 원천 방지를 위한 경유의 수소처리 촉매 개발 등으로 환경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또 1999년부터 <국가지정 환경촉매실>로 선정돼 촉매설계 기술을 통한 청정기술 개발과 그린화학의 구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4/10>